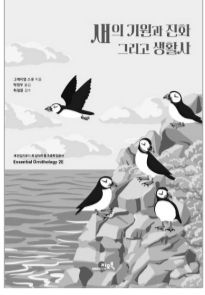


새 관찰자들이 꼭 알아야 할 조류학 입문서

새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생활사

그레이엄 스큫트 지음, 박정우 옮김



1860년 독일 남부 졸른호펜의 석회암층에서 시조새 화석이 발견된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듬해다. 19세기 과학자들은 잇따라 발견되는 시조새 화석표본을 통해 새 골격과 생활양식, 서식지 환경, 나아가 조류의 진화과정을 연구할 수 있었다. 시조새는 조류와 유사한 골격과 비행에 적합한 깃털, 달리기 적합한 다리,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참새목 조류와 비슷한 발가락(앞쪽 3, 뒤쪽 1개) 배열은 헛대아 앞거나 늑대대에서 여류 등을 잡아 먹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간 '새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생활사' 저자는 영국 헐(Hull)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조류 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조류학자이다. '푸른머리새'라는 애칭을 쓰는 율리아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서울 태생인 그는 고교 때부터 안양천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모니터링하며 새에 매료된 '새 덕후'이다.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진학한 후 '대학연합 야생조류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태분야 청년리더 200명과 비글호 항해를 재현하는 '다윈 200' 프로그램에 한국대표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학 중앙도서관 한 구석에서 이 책을 우연히 접하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번역하게 됐다. 율리아는 시간을 '조류학과 과학교육에 정통한 저자가 새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시민과학자와 학생들을 위해 조류학의 '핵심'만 짧으면서도 밀도있게 정리한 입문자용 교과서'라고 밝힌다.

저자는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는가', '언제, 어떻게 조류 비행이 진화했는가', '새들은 왜 이동을 하는



새들은 개체군이 최소 생존가능 규모 이하로 줄어들 때 사실상 멸종하게 된다. 강원 철원군 철원평야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무리. /연합뉴스

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후 많은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새 이야기를 풀어어나간다. 책 구성은 1860년대 시조새 화석 발견을 시작으로 새의 진화, 깃털과 비행, 이동과 길 찾기, 알-둥지 그리고 새끼새, 번식, 먹이 활동과 포식자 회피, 개체군-군집 그리고 보전 등 7개 장으로 나뉘져 있다. 조류는 수백 만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공룡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저자는 "새는 수각류(이족보행 공룡)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특화된 척추동물'이라고 표현한다.

새들의 행동방식은 경이롭다. 새 깃털은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형성해 날개 함은 물론 방수, 단열, 의사소통, 포식자 회피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새들의 깃갈이도 과학적이다. 날개 면적의 변화에 따라 체중을 조절한다. 이동 거리가 짧은 종의 성조는 장거리 이동하는 종보다 깃갈이에 더 긴 시간을 들인다고 한다. 큰뿔부리도요는 알래스카 번식지에서 뉴질랜드 월동지까지 1만1500km 거리를 삼엄이 8일 만에 날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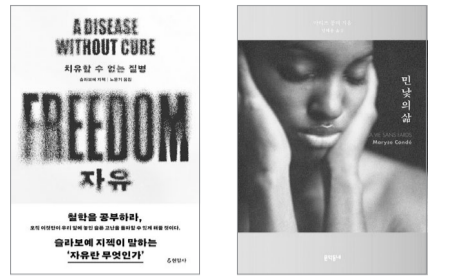
저자가 들려주는 새들의 이야기는 깊이 있고 난해하지만 조류학자들의 많은 연구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날아가기' 코너와 내용 요약을 통해 신간의 다른 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관심사는 새들의 '멸종과 보전'에 닿는다. 1500년 이래 도도, 여행비둘기, 큰바다오리 등 135종의 조류가 절멸했다.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조류들이 주로 인간활동의 결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비정부 기관들간 협력을 통해 새들을 멸종의 벼랑 끝에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아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지만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 사실은 미래 세대에 새로 가득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새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배워가야 하는 이유이다." <지오북·2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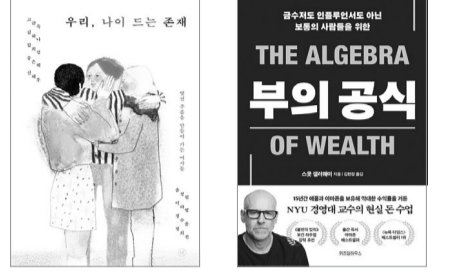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자유(슬라보예 지젝 지음, 노윤기 옮김)=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고결한 가치인 '자유'의 본질을 파헤친다. 지젝의 자유론은 오늘날 전쟁과 질병, 자본주의 세계에 몰음표와 느낌표를 던진다. 상식과 제도, 리버티(자유)가 무너져 가는 세상에서 대중은 어느 정도로 각성해야 하는지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인 차별의 문제 등을 심리학 이론으로 분석하고, 대중문화와 사회학 등을 넘나들며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현암사·2만6000원>



▲민낯의 삶(마리조 콘테 지음, 정혜용 옮김)=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과들루프 섬에서 태어난 마리조 부를들은, 흑인에 대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낸다. 이후 프랑스 유학을 떠나지만 첫아들 드니를 출산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한다. 역경 속에서 그녀는 네 아이를 출산하고 코트디부아르 등으로 이주하면서 삶을 꾸려나간다. 아프리카 정치인과 교류했던 일화부터 탈식민화 이후 독재 치하 정세를 포착한다. <문학동네·1만7000원>



▲우리, 나이 드는 존재(고금수 등 9명 지음)=나이 들을 느끼고 있는 아홉 명의 여성 작가가 반짝이는 메시지와 삶의 통찰을 전한다. 저속 노화가 하나의 열풍이 된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나이 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긍정해야 하는지 목소리를 낸다. 저자들은 노화의 고충을 피할 수는

없으나 '노쇠'가 노화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한다. 시간 속에서 노화는 진짜 나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새 국면이며,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라고 격려한다. <휴머니스트·1만6800원>

▲부의 공식(스콧 갤러웨이 지음, 김현정 옮김)=금융과 집중력, 시간과 분산 등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투자 마인드부터 소득과 지출의 관계 등 노하우를 제시한다. 연세 창업가로서 큰돈을 벌었음 뿐 아니라 작가·교수로서 전문성을 지닌 저자는, 채권과 주식투자 등 보통 사람에게 유용한 방법들을 가이드한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사과를 그리는 100가지 방법(박이도 지음)=점과 선, 색 등 이미지를 변형시키며 아이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돕는다. '사과'를 모티브로 곱질 만남은 모습, 하얀거나 붉은 사과 등 여러 사물을 구현한다. 독사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자만 남은 사과나 앞으로만 구성된 사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단추·2만5000원>

정신건강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신이 공격받을 때 매번 화가 나는 '준하'를 중심으로, 분노의 정체를 짚는 소설 형식으로 탐구한다. <뜨인돌·1만6800원>

▲화내는 게 내건 건가요?(문지현·김수경 지음)=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얼굴색이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청소년

▲너의 숲 너의 농장 너의 섬(전3권-존 클라센 지음, 서남희 옮김)=상상 속 아이는 자신이 글을 읽거나 말할 수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말한다. 집, 강, 나무 등 책 속 사물에는 사람과 같이 '노동자'가 달려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이들은 섬과 농장, 숲과 같은 공간을 물결으로 채워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공간을 삽화로 마주한다. <주니어PHK·전권 4만2000원>

정치부터 K팝까지...역동적인 한국 이슈 다룬 13개의 토론

다이내믹 코리아

정주식·은유 외 5인 지음



지난 2022년 시작된 유튜브 채널 '토론의 즐거움' 채널들이 공유했던 건 '가치 상실감'이었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회적 이슈는 쏟아져 나오는데, 공론의 장은 붕괴되고 공동의 가치도 사라져버렸다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은 "지금의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가는데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집요하게 상상하는" 이들의 토론은 지난 2025년 1월까지 140여회 진행됐고 주제는 거대 정치 담론부터 케이팝 문화까지 다양했다.

'다이내믹 코리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넘나들며 역동적인 한국의 오늘을 진단한 사회 문화 토론집

이다. 화제의 사건을 다룬 13개 토론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관점을 배울 수 있는" 토론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

토론 참여자는 '직설'에서 뉴스 콘텐츠를 실험했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정주식, 사회 비평서 ' 지금은 없는 시간'을 쓴 강남규, 기자와 공직을 거친 후 '한국의 능력주의'를 집필한 박권일, CBS 뉴미디어 '씨리얼'의 10년차 PD 심혜림, '글쓰기의 최전선' 등을 펴낸 은유 작가, 주간지 '한겨레 21' 편집장 이재훈,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혜영 등 7명이다.

지난해 8월초 진행된 '거부권 중독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 편은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세워나가는 대통령의 전횡을 보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이는 현실이 됐고, 탄핵안 가결 다음날 진행된 '계엄군과 응원봉,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는 '실행자의 윤리와 광장의 변화'에 주목한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는 자신의 열애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BBC는 "분노한 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며 비난하자 K팝 스타는 비굴한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스타들은 압박감이 크기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론자들은 '카리나는 몇 살부터 연애하면 됩니까?'를 통해 케이팝 성공 신화의 명암까지 살펴본다.

'팻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던 한 유튜브버가 자신의 강아지 '티코'를 복제한 소제를 다룬 '죽은 개가 돌아왔어요. 복제견 찬반 논란', 도파민만을 집중 공략하는 짧고 강렬한 '숏폼' 앞에서 무너져가는 저널리즘의 위기를 논하는 '도둑맞은 집중력과 뉴스의 위기'도 눈길을 끈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편에서는 페미니즘 논란과 '텍스트 힙'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며 '대한민국이 양궁협회처럼 운영된다면', '사람들이 '흑백요리사'에 열광하는 이유'를 주제로 토론한다.

그밖에 '양당제를 돕는 중도정치의 역할', '진보정치 는 왜 망했을까?', '정치인 향한 테러가 끊이지 않은 이유' 등 정치 관련 이슈도 실렸다. <세계적·2만1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원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